

국립종축장 대전지장—!
 약간 긴 듯한 이 단어가 이곳 충
 남 대덕군에 자리잡고 있는 종계시
 험장의 정식 명칭이다. 지난달 방문
 한 수원의 축산시험장과는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나라 중급 육종에
 헌신하고 있는 기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민간인의 활용이 비교적 적
 어 바람직한 국민 협동체계의 육종사업에 약간
 미흡한 듯한 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종축장 대전지장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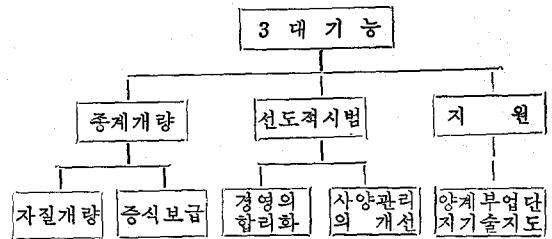
은천으로 유명한 유성에서 서남쪽으로 약5km, 두시간마다 한대씩의 버스가 있고 그 외는 택시를 이용해서 포장 안된 들자갈길을 툄툄거리며 달려야 하는 이곳—충남 대덕군 진잠면 계산리—여기가 국립종축장 대전지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기자가 여기 도착한 때는 오전10시경, 그러나 시골은 도시와 달라 새벽 안개가 채 걸리지 아니하여 먼산의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 이른 아침이었다. 호남 고속도로가 멀리 내다 보이고 계룡산의 줄기가 달려 내려와서 발을 모아 웅크리고 있는 산기슭 가까이에 바짝 자리잡고 있는 시험장은 최근 새로 단장한 계사 및 사무실의 다양스런 색깔이 우거진 수풀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 외국의 아늑한 연구소 같은 인상을 풍겼다.

연혁과 기구

국립종축장 대전지장은 1956년 7월 4일 중앙축산 기술원 대전지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 이듬해 다시 농사원 축산 시험장 대전지장으로 개칭되면서부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후 여러가지 이름으로 바뀌고 기구 확장을

하다가 1969년 9월 12일 현재의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연구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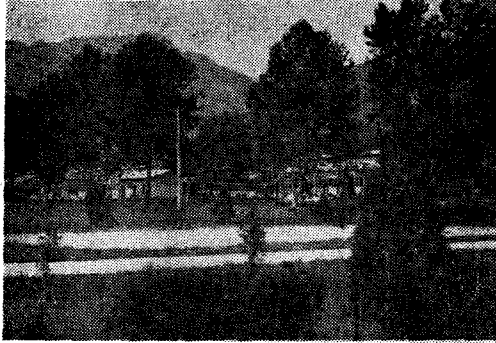
〈표 1〉 임 무



국립종축장 산하에 4지장이 있는데 여기 대전지장은 가금, 사천지장이 돼지, 대관령지장이 육우에 대하여 육종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운봉지장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969년 9월 12일 현재 명칭으로 바뀔과 동시에 부임한 박상문지장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이곳 지장은 1956년 창설 당시 콘서트 건물 46평짜리 6동 즉 총276평으로 착수하여 그후 육추사, 부화실, 사무실등을 증축하였고, 기본수

수 2,000수로서 연구사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1969년 연구시설의 규모확대를 전의하여 1970년에 종래의 건물을 수리, 영구계사로 만듦과 동시에 230명의 건물을 증축하여 현재 총 506명으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종계장 앞전경

순계(Pure line)의 확보

사실상 육종사업이라 함은 매우 장기적이고

<표 2>

순 계 확보

구 분	품종별			뉴 햄 프 사			로드아일랜드 레드			계		
	우	송	계	우	송	계	우	송	계	우	송	계
'70년말 성계 보유수	1221	122	1343	642	95	737	506	65	571	2369	282	2651
'71년 구입 및 도입	—	—	—	—	—	—	—	—	—	—	—	—
자 체 육 성	2180	220	2400	880	120	1000	1420	180	1600	4480	520	5000
'71년말 성계 보유수	2180	220	2400	880	120	1000	1420	180	1600	4480	520	5000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므로 어느 한 민간인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기에 이는 학계, 국가, 민간인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사업체제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매년 막대한 숫자의 원종계(GPS) 및 종계(PS)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게 됨으로 인해 많은 양의 외화를 손해보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서는 아니되지 않겠느냐?」고 박상문장장은 반문하면서 말을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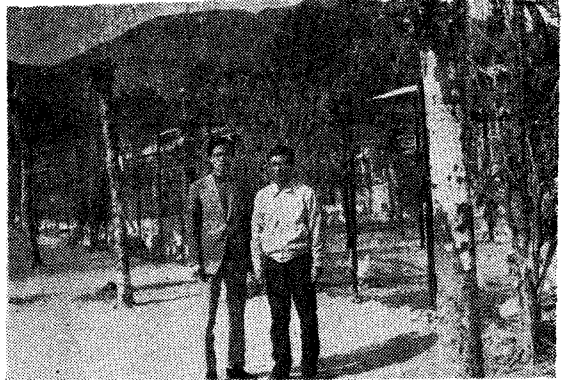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는 순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순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전인자가 동형화(HOMO)된 순계를 확보하여 우수한 원종계(GPS)생산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지장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종의 순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축산시험장과 더불어 순계확보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대전지장은 최초 1952년 운크라 원종으로 들어온 레그혼종의 성환계통을 일부 양도받아 부화 생산하였고 1971년 2월 역시 성환에서 미국의 콜로니알계 종란 3,000개를 수입한 것을 1969년도에 양도받아 길러주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7년 성환에서 인수한 뉴 햄프샤 종과 1967년 미국에서 로드 아일랜드종 순계종란 1,000개를 도입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다.

「대전지장에 보유하고 있는 순계는 실질적으로 유전인자가 동형화(HOMO)된 종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문장장은 확보하고 있는 순계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하면서 말을 이었다.

「오히려 국립종축장은 순계확보보다 원종계(GPS)확보가 더욱 급선무일지 모릅니다. 순계의



기자와 함께 종계장앞에서 포즈를 취한 박상문장장

확보 및 연구는 축산시험장에서 담당하고 국립종축장에서는 원종계를 확보하여 각도종축장이나 민간종계장에 종계(PS)를 생산보호하여 주는 실질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72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의국중계 현수입량의 1/4~1/3정도 만큼 만이라도 대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전지장은 착실히 육종에 전념하고 있다

박장장과 함께 시험장을 돌아보는 기자는 청결한 물을 닭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각계사 운동장에 항상 흐르는 수도장치를 해 놓았음은 물론, 심지어 각 케이지의 '물통'에까지 수도시설이 되어 있음에 저오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도장치의 사진(운동장과 케이지)

대전지장은 현재 연간 약 8만수정도의 순계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72년부터는 25만수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

〈표 2〉 년도별 순계 생산현황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66,000	57,000	54,000	60,000	41,000	36,000	92,000	63,000

「'70년도말의 2,600수 규모가 현재 5,000수 규모로 확대되면서 여러가지 시설이 부족하여 '72년도에는 육추사와 중추사 3동 및 부화장을 더욱 증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구임원으로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연구사보 1명등의 3명밖에 없어 다소 부족된 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여 나갈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더욱 믿어워 보이는 박상문장장은 가끔육종으로 우리나라 양계발전에 헌신할 뜻을 나타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끝맺었다.

「학계나 국가기관이나 또는 민간인이 같은 계통에서 일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면서 일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외국계의 무작정 도입은 지양되어야 하며 우리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육종사업으로 이의 전체적이고 일시적인 대체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단계적으로 이의 대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 민간인들은 국가기관을 끊임없이 활용하므로써 더욱 체적질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층 더 가끔육종시험장으로서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육종사업이란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이러한 연구기관이 도처에 산재, 발전하여 갈때 우리에게도 무척 고무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귀로에 올랐다. □□

★ 경기 부화장 ★

- ◆ 경기 레그 혼 70-1호
- ◆ 경기 육용 계

주 소 : 안양읍 안양리 640
전화 (안 양) 2993